

정동영 통일부 장관, 「울란바타르 동북아 안보 대화」 참석 계기 몽골 방문

-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월 4일(목)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되는 「제11차 울란바타르 동북아 안보 대화」 특별연설을 위해 6월 3일(수)~6월 6일(토) 3박 4일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한다.
- 정 장관은 「울란바타르 대화」 개최식에서 ‘한반도 평화공존과 동북아 공동번영의 길’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실시할 계획이다.
- * 울란바타르 대화(Ulaanbaatar Dialogue) : 몽골 정부 주도로 2014년부터 개최되어 온 동북아 지역 다자 안보 대화체로, 역내 국가 정부·학계·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동북아 평화와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
- 또한 몽골 방문기간 중 몽골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.
- 이와 함께 정 장관은 몽골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 기념관을 방문하여 헌화하고, 우리 독립운동사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.
- 정 장관의 이번 몽골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, 관련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.

붙임 : 「울란바타르 대화」 개요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통일정책실 국제협력기획과 | 책임자 | 과 장 | 서영신 (02-2100-2370) |
| | | 담당자 | 주무관 | 박윤범 (02-2100-2328) |

1 울란바타르 대화 개요

□ 의의

- 울란바타르 대화는 동북아 안보·에너지·환경 등 전통적·비전통적 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정례적 국제회의
 - 유럽의 냉전완화를 이끌어 낸 ‘헬싱키 프로세스’를 모델로 삼아, 동북아 지역에 지속가능한 신뢰 구축 매커니즘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

□ 2026 「제11차 울란바타르 대화」 개요

- 일정·장소: '26.6.4.(목)~6.5.(금), 울란바타르 호텔 이벤트 홀
- 주제: △동북아 평화를 위한 안보상 과제와 기회, △예방외교와 중재방안
△신규 안보 문제 △동북아·중앙아시아 간 연결성 및 친환경 협력방안 등

2 울란바타르 대화 연혁

- '13년 몽골 차히아긴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‘민주주의 공동체 각료회의’에서 동북아 안보여건 개선을 위한 ‘울란바타르 대화’ 제안
- '14.6월, 제1회 「동북아 안보에 관한 울란바타르 대화」를 2트랙 중심의 국제 학술회의로 개최
- '17년, 제4회 회의부터 몽골 외교부가 본격적으로 주도하며 1.5트랙(반관반민) 형태로 격상되어 정책적 함의를 갖는 대화로 격상
-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잠시 중단되었다가 '22년 7회 회의를 시작으로 재개